

성악 초등부 박형하 광신대 교수

발성 기법·훈련 전반적으로 훌륭

올해 호남예술제 초등부 경연은 어느 해 보다도 수준이 높고 진지한 분위기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준비와 경연 모두 거듭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6학년 경연은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으로 인해 평가도 어려웠고 차이를 말하기도 참 힘들었다. 전반적으로 발성 기법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음악성과 표현력, 자세도 매우 훌륭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발성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상태와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요를 통해 시어를 아름답게 표현해 나가는 어린이들은 건강하고 건전한 경연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번 경연에서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와 소리에 맞지 않는 선곡을 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성악 중·고등부 박계 조선대 교수

‘입시 지옥’ 없이 전문가 성장하길

중등부 특히 중 1~2학년 참가자들의 경우 몇 년 전만해도 변성기를 거친 학생들과 거치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참가자는 거의 변성기를 거친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이태리 가곡을 선택했고, 드물게는 독일 가곡을 선택하기도 하는 등 선곡과 가창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이는 체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과 또 대부분이 정식으로 성악 지도를 받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 뒤에도 입시 지옥에 빠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서 전문 음악가로 성장하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음악을 통해서 고급 문화를 즐기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등부에서는 이전에 무리한 곡 선정이 많았으나 올해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곡을 선택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관악 이흥규 충청대 교수

소화하기 어려운 곡 선택 아쉬워

먼저 59회 호남예술제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실력있는 음악영재를 만났다는 기쁨과, 우리나라 음악계가 앞날이 밝다라는 뿌듯한 마음을 한가득 담고 왔다.

특히, 타악기와 금관악기 부분의 학생들 연주가 매우 뛰어났다. 다만 초등학교 플루트 부문에서 학생들이 연주하기 어려운 곡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무작정 어렵고 수준 높은 곡을 택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연주 가능한 곡으로 콩쿨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고 갈 음악 영재들에게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현악 이승진 영남대 교수

외국서도 손색없는 인재 눈에 띄네

올해 호남예술제에는 기량이 우수한 학생부터 앞으로 많은 학습이 요구되는 학생 등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우선 외국에 가서도 음악을 잘 소화시키며 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몇 명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반면 저지 않은 경연자들은 본인에게 너무 버거운 수준의 곡들을 연주하느라 힘들어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템포를 정확히 하기도 너무 급하게 연주해서 본인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매우 나쁜 습관이 굳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현악기는 무엇보다도 음정과 관련해 정확하게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음정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들이 많았다. 활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궁법을 익혀야 하겠다.



피아노 초등부 박규연 군산대 교수

음악 인재로 성장 가능성 보여

초등부 1·2학년과 5·6학년의 경연은 오월의 화사하고 싱그러웠던 날씨만큼이나 신선하고 활기찬 축제분위기가 그대로였다. 음악성, 연주곡에 필요한 충분한 테크닉, 이해도 및 완성도, 곡에 적합한 템포, 적절한 페달 사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했다.

초등 1·2학년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웠을 수 있을 곡들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모두 큰 실수가 없었다. 한 음 한 음 진지하게 연주하는 모습들은 무척 인상적이었고, 특히 몇몇 학생들은 매우 뛰어난 기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음악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다.

초등 5·6학년은 우월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매우 고른 연주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이 너무 긴장해 자신의 음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음악적 표현이 미숙한 점이 아쉬웠으나, 충분한 가능성들을 발견한 경연이었기에 내년이 더 기대된다.



피아노 중·고등부 서영화 조선대 교수

정확한 기본기·테크닉 갖고 닦아야

이번 중고등부 피아노 부문은 조금 저조한 편이었지만, 몇 명의 학생들은 음악적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기도 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음악의 가장 기본인 템포, 박자, 리듬이 흔들려서 좋은 연주가 되지 않았으며, 터치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손가락, 손목, 팔의 사용법과 정확한 테크닉을 알고 연주할 해야 한다. 그레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에 충실해야 하며 곡을 마음속으로 충분히 노래하면서 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 페달을 잘 사용하여 다이내믹하고 곡의 흐름을 유연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의지력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무용 박선옥 광주여대 교수

‘우리춤 호흡’ 몸이 기억하게 하자

초등부의 경우 한동안 테크닉 중심으로 안무 구성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내용 설정이 긍정적이었다.

고등부는 체격 및 실력향상이 매우 두드러졌다. 단 창작무용은 체격조건에 맞는 춤사위 구성과 전통무용 호흡을 통한 창작 춤사위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자칫, 창작 움직임이 외국 무용의 움직임과 혼동되어 우리 전통춤의 호흡을 몸에서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무용 초보자와 입시준비 참가자의 간극이 큰 한국무용의 경우 자기 대회를 위해 초·중등 부문은 학교 및 학원의 동시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참가가 독려될 경우 무용전문 학원 또는 무용강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장려차원으로 수상자 확대 또한 대회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무용 임지형 조선대 교수

드라마틱한 표현·테크닉 뛰어난

호남예술제는 지방무용의 대중화 발전에 기여했고, 무용예술의 정체성과 비전, 초석이 될 인재들의 경향을 진단하는 한 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올해 현대무용 참가자들의 경우 드라마틱한 표현이 돋보였다. 또 뛰어난 테크닉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었다.

올해 신설된 실용무용 스트리트댄스 참가자들도 인상적이었다. 길거리가 주무대였던 장르가 무대로 옮겨오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군무팀들의 동작이 한층 돋보였던 무대였다.

미래의 무용가들이 개인의 꿈과 희망, 열정을 담아 풀어내는 무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년에도 순수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무용인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발레 박준희 조선대 교수

행복한 움직임 자체가 좋은 성적

제59회 호남예술제를 끝내고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예년에 비해 발레 부문 참가자들이 많이 줄어 있었다.

호남예술제는 특히 무용 부문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그들은 교육자로, 무용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예술제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1년에 한 번씩은 심사를 하면서 옛 추억으로 돌아가 행복을 느끼곤 한다.

비록 숫자가 적기는 했지만 이번엔 참가한 학생들의 실력은 뛰어났다. 참가자 모두 최고였다. 무대에서 행복한 움직임 자체가 좋은 성적이었다.

호남예술제에 대한 지도교사들의 관심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호남예술제를 풍요롭게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도 나와같은 예술인처럼 호남예술제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국악 서담 전남도립대 교수

수준별 적합한 실력 발휘 좋았다

경연에 출전한 참가자의 대부분은 그 음악적 실력과 표현력에 있어 매우 안정감 있는 완성도를 보여줬다.

경연에 있어서는 초등부의 경우 곡의 선정이 수준별로 적합해 실력을 발휘하는데 자연스러웠고, 실수도 적어 열띤 경연이 됐다.

그리고 기악타악단체 선반연주팀의 기량은 매우 탁월했으며 그의 단체 합주에 참가한 모든 팀이 우수한 실력을 보여줬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참가자는 적었지만 기량은 전체적으로 우수해 전공자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가야금산조 부문 참가자들은 조의 특성을 알고 유파별 특징을 잘 표현했다.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악에 있어 관악 참가자 저조, 가야금과 가야금병창의 일변도, 성악참가자의 부재 그리고 전체 참가자수의 감소다.



합창 강재수 광양시립합창단 지휘자

청소년 바른 성장엔 합창이 최고

남평초와 송원초의 지도교사와 학생들의 수준이나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하며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초등학교 합창단이 다루기에 쉽지 않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매너와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서로를 격려했는지 심사위원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합창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협동심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교육행정을 하는 이들과 일선 교장 선생님에게 꼭 부탁할 게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증진시키고 흥겨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노랫말, 투명한 하모니를 통해 서로간의 막힌 마음을 허물어 심성을 순화시키는 합창에 관심을 가져주길.



합주 황성규 전남대 교수

정확한 화음 위해 기초를 튼튼히

초등부들의 열띤 경연은 만족할만한 앙상블을 보여주었으며 음악성이나 기교 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학생들의 연주력이 돋보이는 대회였다.

몇 참가팀은 큰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주를 선보였다. 무엇보다도 자기수준에 맞는 곡들을 선택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몇몇 연습 되지 않은 팀들과 곡명선택을 잘못해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팀들이 있어 아쉬움도 있었다.

콩쿠르에서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을 요구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다지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연습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실용음악 배창희 남부대 교수

고등부 보컬 실력 놀라웠다

현대 예술이 실용적인 예술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실용음악부문 참가 학생들의 참여 또한 그 수가 많아졌다.

초등부 기악부문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보컬 참여 학생의 기량력은 성인 못지않게 좋았다. 중·고등부 경연부문에서는 어쿠스틱 기타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으나 기대치 이하였다. 그러나 전자 악기에 길들여져 있는 요즘 어쿠스틱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것은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일렉 기타 경연자들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었으나 몇몇 학생의 실력이 뛰어났다.

이번 호남예술제 실용부문 경연의 하이라이트는 고등부 보컬 부문이었다. 참여 인원도 많았을 뿐더러 실력도 놀라웠다. 물론 음정이나 박자를 놓치는 학생도 있었으나 대회라는 부담감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을 뿐 기본기는 탄실했다.



미술 강남구 서양화가

상상력·창의성·생동감 넘쳐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 넘치는 작품이 많아 많은 고민을 했다.

학생들의 미술 실력이 갈수록 발전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무척 기뻐했다. 자연, 가족, 미래, 사이버, 환경오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대회의 출품작들은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성,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이 많아 심사위원들은 어렵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를 했다.

이번 심사는 초·중·고등부의 수준과 내용에 눈높이를 맞췄다. 초등부에서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 중등부에서는 작품의 성실함, 고등부에서는 표현과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순수한 동심이 잘 나타나면서도 기교적이지 않은 열정을 가진 작품들,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잘 표현했는지, 전체 화면의 구성, 형과 색의 배치 등 짜임새가 어땐지, 감정 표현력이 풍부한지 등도 두루 확인해 작품들을 선정했다.



만화·일러스트·캐릭터 이진희 순천대 교수

획일적 ‘대회용 문화문법’ 욕에 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만화 공모전 및 실기대회 등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만화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자리 잡았음을 새삼 느끼곤 한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상상력과 스토리 창작능력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드로잉 실력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응모한 만화와 일러스트의 경우 기발한 상상력과 탄탄한 기초대상을 겸비한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학원에서 반복 연습한 것으로 보이는 획일화된 대회용 문화문법에 너무 얽매어 있는 작품들이 이따금 보인다. 좀 더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린 그림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없었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도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작문 이성자 동화작가

고등부 詩 응모작 모두 수작

초등부는 자신의 생각이 순수하게 잘 드러난 작품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중등부는 글재가 워낙 생활과 밀착되어서인지 엄정한 응모 숫자에 비해 제재에 대한 설명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작품이 눈에 띄어 흐뭇했다. 고등부의 경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뛰어났다.

산문 부문은 글재와 어울리는 한 편의 완성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담아놓은 작품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초등부의 경우 눈높이에 잘 어울리는, 동심이 살아있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줬다. 중등부는 세월호의 충격이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대부분 '약속'이라는 글제를 선택했는데, 그 슬픔과 분노가 비슷비슷하고 정리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들이 많았다. 고등부의 경우는 '사회적 환경이 그들의 활발한 발목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나름대로 탁월한 글 솜씨를 보여주었다.

